



우리학교 출신인 ‘주호식당’의 대표 윤주호씨는 여전히 영통에 남아 묵묵히 우리학교를 후원해오고 있다.

(사진=김경민 기자)

# ‘주호식당’ 사장님의 따뜻한 소망 “경희의 단짝으로 남겠다”

이봄 기자 lbom.kr@khu.ac.kr

해가 지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 앞 ‘주호식당’은 창문을 활짝 열고, 찬바람을 녹여줄 학생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기다립니다. 주호식당의 사장 윤주호 씨는 햇수로 3년째 우리학교 후원의 집 가족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경희대에 소중한 기부금을 전해주고 있는 윤 씨는 “경희대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는 만큼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금 가게가 위치한 영통에 2012년 우리학교 포스트모던을 약학과 신입생으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재작년 그의 이름을 따 ‘주호식당’을 개업한 윤 씨는 술이 좋고 사람이 좋아 전공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열어 “학생들에게

친근한 형, 오빠이자 든든한 선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든지 경희 학생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파스한 일념으로 그는 주호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찾아와주는 많은 경희대 학생들을 보며 그들에게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윤 씨는 후원의 집 기부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후원의 집 소속 이전에는 학과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학교와 소통했을 만큼 그의 기부 의지는 마음 속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윤 씨는 10년을 가까이 영통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학교 앞 상권을 잘 알고 또 우리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에 그의

가게도 자연스레 영통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영통은 저의 터전이자 보금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는 종종 교내를 산책합니다. 여러 학과 건물들을 보면 종종 힘들었던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간도 돈도 없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학생들에게 더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윤 씨는 우리학교 학생들로부터 축제나 재학생 공연 관련 지원 요청을 받으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다고 합니다. 학부생 시절 윤 씨 또한 똑같은 생활을 하며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여러 가게를 돌아다닌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후배들의 공연에 도움이 된다면 그저 기쁘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술 ‘주’에 좋을 ‘호’를 쓰는 주호식당의 ‘주호’는 윤 씨의 친구들이 학창 시절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술이 좋고 사람이 좋은 그는 가게에

찾아오는 우리학교 학생들도 모두 친한 동생처럼 느껴집니다. “축제 행사 차원에서 서비스로 내주었던 돈가스 하나에도 기뻐했던 모습도 참 예뻐고, 새벽까지 온힘을 다해 노는 모습도 귀엽고, 새벽에 찾아와 울적해하는 친구들을 볼 때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학기 중 꾸준하게 찾아와주는 얼굴들에게서 책임감을 느끼며, 졸업하며 발길이 뜸해지는 친구가 생길 때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윤 씨에게서 학생들을 향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문을 연 주호식당은 현재까지 영업 기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냈습니다. 월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었고 저축해둔 돈을 모두 사용하며 지내는 동안 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했었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하나둘씩 학생들이 모이고,

오랫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가게로 돌아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잠시 흔들렸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 다짐했던 ‘편안하고 한결같은 가게’라는 목표를 되새기며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주호식당에서의 그를 한마디로 ‘단짝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편하게 불러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남고 싶어요.” 학생들이 보내주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하루하루 새롭게 감사함을 느끼는 윤 씨의 소망은 ‘앞으로도 그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윤 씨는 한결같이 후원의 집 기부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손사래 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학생들이 모두 몸 건강히 오래도록 즐기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윤 씨는 누가 뭐래도 경희의 든든한 선배이자 힘이 되는 후원자입니다.